

“교사 행정업무 과감히 줄이겠다”

서거석 교육감 ‘2024 교사 행정업무경감 대책 발표’

7월 1교1인 디지털튜터 200개 학교에 우선 배치 정보업무 담당교사 지원 학교업무지원센터 확대 공문서총량제 시행 등도

서거석 교육감이 학교에 디지털수업을 도와주는 1교1인 디지털튜터 배치 등 교사행정업무경감 대책을 발표해 관심이 쏠린다.

서 교육감은 2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업 중심의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며 “새로운 정책이 도입될 때마다 교사들의 행정업무가 늘어나 수업 연구는 뒷전으로 밀리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날 서 교육감이 언급한 2024년 교사 행정업무경감 대책은 교원단체와 현장정책기획단, 각급학교 교사들의 요구를 적극 수렴한 결과라 귀추가 주목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업무 지원 △전북에듀케어 업무 경감 △학교업무지원센터 확대 개편 △교무업무 지원 △공문서총량제 시행 등이다.

먼저, 정보업무 지원과 관련해서는 “스마트기기, 스마트철관, AI 기반 에듀테크 교실 환경 구축으로 정보업무



서거석 교육감은 2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행정업무경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담당교사의 업무가 크게 늘어났다”면서 “학교에 디지털튜터를 배치해 수업 중 발생하는 문제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또 스마트기기와 스마트철관 관리 업무도 지원하도록 준비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디지털튜터를 7월부터 200개교에 우선 배치하고, 2027년까지는 모든 학교에 배치해 학생들의 다양한 문제 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전북에듀케어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는데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고,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부담을 느꼈던 업무라며,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학교업무지원센터에서 에듀케어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

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도내 14개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업무지원센터를 7월 1일자로 확대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 41명인 인력을 107명으로 늘려 디지털튜터와 배움터지킴이 채용업무, 학생 전출입에 따른 정보기기 관리업무, 재고과와 등 손이 많이 가는 교과서 업무, 많은 인력이 필요한 도서관·과확실 정리 등에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교사들의 교무업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교무학사를 지원하는 교사를 추가 배치해 학적이나 생활기록부, 보결수업 관리 등 교무학사 업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학생수에 비해 교사가 적은 소규모 학교부터 교무학사를 지

원하는 교사를 학교 정원의외로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올해 9월부터 클라우드 기반 업무시스템인 전북학교업무플랫폼을 제공해 학교업무 간소화와 자동화를 지원하고, 공문서총량제를 통해 2023년 기준 10%가량 공문서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서 교육감은 “교사가 오롯이 수업과 교육활동에만 전념하는 것이 전북 교육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라면서 “이번에 시행되는 대책이 교원단체와 현장 정책기획단, 각급학교 교사들의 요구를 적극 수렴한 결과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해 과감한 업무경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 RIS 자율과제 공모 선정

전주대, 3억 확보 남원시와 컨소시엄 구성 미식 관광 콘텐츠 개발·상품 컨설팅 등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남원시 지역혁신사업(RIS) 정책 자율과제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자체와 대학 간 상호협력력을 기반으로 지역발전 및 현안 해결을 도모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해 전북의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전주대에 따르면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3억을 확보, 남원시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자원인 농특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우수한 미식 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업 수요 맞춤형 관광 상품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남원 미식 관광 콘텐츠 개발, 미식 관광 상품 특허 출원, 남원시에 있는 기업에 기술 이전 및 맞춤형 미식 관광 상품 컨설팅, 국내외 홍보 마케팅 강화

를 통한 취업 연계 지원과 협업 기업(푸드테크)과의 공동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연구 개발 지원 등이다. 한편 전주대학교는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2023년 지역혁신사업(RIS) 정책 자율과제 공모를 통해 ‘남원 백향과를 활용한 푸드산업 활성화’에 선정돼 남원 백향과를 활용한 아이스크림과 백향과 초콜릿을 제작 및 생산해 소비자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

김수인 교수(한식조리학과)는 “남원시에서 주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푸드 연계 미식 관광상품 활성화 사업과 연계한 기술이전 및 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남원시의 미식 관광 산업 경쟁력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내달 12일까지 학교급식 특별점검

전북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등 간부공무원 참여 급식 위생·안전관리·대면검수 현장 등 확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6월 12일까지 학교급식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유정기 부교육감을 비롯한 본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 65명이 참여한다.

이는 최근 식중독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간부공무원들이 직접 급식현장을 방문해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다.

도내 단설유치원 및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중 학교급식 조리교로 상반기 식약처 합동점검 적발학교, 대규모 학교, 3식 운영학교 등이 우선 점검 대상이다.

올해는 지역교육청 교육장들이 직접

참여해 군 지역의 작은 학교도 방문할 예정이다. 간부공무원 1인이 1학교에 사전예고 없이 방문해 급식 전반의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식재료 검수 시복수 대면검수 이행 여부 △식재료 보관·관리실태 △학교급식 종사자 위생관리 실태 △급식시설 및 기구 위생·안전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사항 확인 등 학교급식 전반이다.

한편 점검 후에는 결과를 분석해 향후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계획에 반영하고, 학교급식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지도 및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총 “교사행정업무경감 대책 환영” | “학교업무지원센터 운영, 학생에 실질적 혜택 될 것”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발표한 2024년 교사행정업무경감 대책에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이날 논평에 따르면 교육 현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교사들은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해 본연의 임무인 수업과 학생 지도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운 환

경에 처해 있었다며, 이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대책으로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전북교총은 “정보업무는 담당 교사 모두가 어려움을 토로했다”며 “디지털튜터 배치와 테크센터 구축, 스마트기기 AS센터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들은 교사들이 교육 본연의 업무에 집

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업무지원센터의 확대 개편은 교사들이 과중한 행정업무에서 해방돼 학생 지도와 수업 개선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할 토대가 될 것”이라며 “학교업무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그 지원의 폭이 점차 넓어져 모든 교사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교무학사 업무를 지원하는 교사를 학교 정원 외로 추가 배치하는 조치는 소규모학교의 어려움을 크게 경감시킬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규모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 디지털 자산 금융 특구 조성’

전북대, 블록체인학회와 워크숍 열고 방안 논의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23일 뉴실크로드센터 동행홀에서 (사)한국블록체인학회(회장 박용범)와 공동으로 춘계 학술대회 및 전북 디지털 자산 금융 특구 조성을 위한 디지털 자산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북은행과 (주)뱅크, FA GLOBAL의 후원으로 ‘전북 디지털 자산 금융 특구 조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교수, 학생,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 전북은행, (주)뱅크, 전주시청, 전주정 보문화산업진흥원 등 산하계 인사들이 참석해 전북 지역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디지털 자산 중심의 제3금융중심지 추진전략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첫 기조 강연에는 스위스 취리히 블록체인 센터 상난 리(Shengnan Li) 선임연구원 ‘스위스 주권 암호 화폐 벨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스위스의 디지털 자산 분야 적용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두 번째 기조 강연에는 코넬대학의 아리 줄스(Ari Juels) 교수가 ‘스마트 계약 보안 및 AI + 블록체인’을 주제로 블록체인과 AI, 보안과 관련된 연구를 소개하며, 블록체인과 AI 기술을 연계한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전북대 블록체인융합연구소의



전북대학교는 23일 뉴실크로드센터 동행홀에서 (사)한국블록체인학회와 공동으로 춘계 학술대회 및 전북 디지털 자산 금융 특구 조성을 위한 디지털 자산 워크숍을 개최했다.

김순태 소장(소프트웨어공학과 교수)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디지털 자산 금융 특구 추진 전략’을 소개, 전북 지역의 발전을 위해 디지털 자산 금융 특구 조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디지털 자산 거래소 보라비트를 운영하는 (주)뱅크의 강대구 의장은 ‘블록체인과 디지털 경제’라는 주제로 블록체인으로 변화한 삶과 산업계의 현황을 전달하며, 블록체인 기업

의 애로사항과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오후 세션에서는 스위스 취리히 대학 블록체인 센터의 김태훈, 상난 리(Shengnan Li) 선임연구원과 블록체인 및 Web3.0, 디지털 자산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박수용 Web3.0포럼 운영위원장(서강대 교수), 그리고 박용범 학회장이 한국과 스위스 간 연구 교류 방안에 대해 강연 및 토론을 펼

쳤다. 마지막으로 학술 발표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기술, 블록체인 실용 기술, 블록체인 제도, 블록체인 정책에 대한 최근 국내외 연구 동향과 산학계가 주목하는 블록체인 분야의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한 양오봉 총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디지털 자산 금융특구 육성에 대한 새로운 영감을 얻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형 디지털 자산 금융특구의 토대를 공고히 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고창교육지원청, 교직원 연립사택 27세대 신축 확정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유승오)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교직원 연립사택 신축 설계비(총 사업비 57억9900만원)를 확보함에 따라 신립초 유류부지 내 연립사택 27세대를 신축한다고 밝혔다.

신축 연립사택은 올해 하반기 설계를 시작해 2026년 11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면적 1,296㎡에 지상 3층 규모로 엘리베이터, 커뮤니티실, 헬스장 등 편의시설을 갖춘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립사택 신축은 △교직원 근무여건 개선 △정주 여건 미흡에 따른 근무 기피 문제 등을 해결함으로써 고창교육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승오 교육장은 “우리 교육지원청 최대 현안 과제로 교직원 연립사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기쁘다. 사택 신축 예산 확보에 도움을 주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도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연립사택 신축을 통해 교직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 교육 및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고창=김영식 기자

‘탄소중립 위한 사회적 책임·미래 가치’

우석대, 장대식 이사장·최영식 단장 초청 강의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23일 문화관 2층 아트홀에서 장대식 Net Zero 2050 기후재단 이사장(사진 왼쪽)과 최영식 경기대 탄소중립협력단장(사진 오른쪽)의 유레카초청강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을 위한 사회적 책임과 미래 가치’를 주제로 열린 이날 유레카초청강의에는 재학생과 교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장대식 이사장은 강의에 앞서 기후재단의 설립 취지를 설명한 후, “사회 교육 활동과 홍보, 국내외 학계·연구 소·환경단체·시민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영식 단장은 “지금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2050년 해수면이 0.4m 상승해



여의도 면적의 88배가 침수된다”면서 “기후 위기로 인한 세계적 재난과 위협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우석대학교는 지난해 9월 Net Zero 2050 기후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 교장·원장 등 대상 청렴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3일 전주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원)장 5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각급 학교 교(원)장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에 대한 이해를 통해 공정한 직무를 수행을 돕고, 각급 학교의 교(원)장으로서 갖춰야 할 청렴 가치 및 판단력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홍열 감사관이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에 대해 안내하고, 문양근 청렴전

문강사가 갑질 예방 교육 및 이해충돌 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교육은 각급 학교 교(원)장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기반으로 공정한 조직 문화 정립을 위한 지리”라면서 “더 청렴한 전북교육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 강화 및 청렴실천의지를 다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